

우리함께 실천해요!

새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



5×10 그리기

그리기

유리창에 5x10 규칙으로 8mm 이상 크기의 점을 아크릴물감으로 그립니다. 건물 실내에 점을 찍으면 외부 풍경의 반사를 막을 수 없기에 반드시 외부에서 합니다.



줄걸기

줄걸기

6mm 이상 굵기의 줄을 10cm 간격으로 늘어뜨립니다. 공동주택 방음벽, 주차장 외벽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5×10 붙이기

붙이기

5x10 규칙으로 스티커를 유리창 외부에 붙입니다. 모양은 상관없지만 자외선과 열에 강한 스티커가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유리창 내부에 붙입니다.



그물망 설치

그물망

채광이나 경관확보가 필요치 않는 곳에 적합하며 설치가 간편합니다. 그물망이 유리창과 밀착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창과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며, 그물망 줄이 너무 가늘어 새가 엉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루 2만 마리 새들의 죽음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

건물과 투명방음벽 아래를 보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한 새들의 사체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결과 약 8백만 마리로 하루 2만 마리의 새들이 덧없이 죽고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사례



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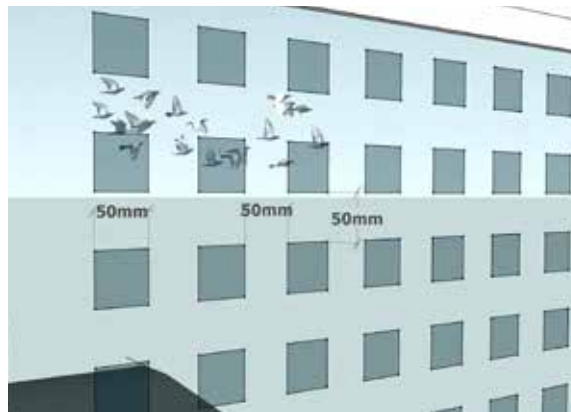
새들은 좋은 시력과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유리창을 피하지 못할까요?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인해 새들은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유리창과 충돌하게 되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대부분 폐사에 이릅니다.

작은 실천으로 새들 살리기

국민의 관심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새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유리창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5x10 규칙과 예방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발견했다면, **페이스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과 **네이처링(www.naturing.net)**에 공유해주세요.



도트형 방지 스티커 부착



격자형 방지 스티커 부착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저감하는

5×10 규칙

5X10규칙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의 틈,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새의 시각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유리창에 물감, 스티커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표시하면 새들은 자신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유리창을 회피하여 비행하게 됩니다.

유리창 충돌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새로 설치되는 건물·투명방음벽

- (투명유리 사용 최소화) 건물벽에 유리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투명 방음벽 설치 최소화 하기
- (특정 무늬 제품 사용) 자외선 반사 특수유리나 불투명 소재 유리 사용 하기, 5×10 규칙이 적용된 무늬 삽입, 새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적용하기

기존에 설치된 건물·투명방음벽

- (건물) 5×10 규칙이 적용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하기, 5×10 규칙의 패턴무늬 그리기, 줄 늘어 뜨리기, 그물망 등 적용 (뒷면 참고)
- (방음벽) 5×10 규칙이 적용된 패턴무늬의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하기